NEWS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 재추진 한다

시, 예타 탈락 유감…광역교통망 확충 대안 추진

효천역 경유 노선 추가로 수요 확보…예타 재신청

광주시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 10일 유감을 표하며 사업 재추진 방침을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예비타당성 미통과가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충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고, 효천역 경유 노선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해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5년 제7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총연장 26.5㎞의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상무역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까지를 연결하며, 도시첨단산단과 에너지밸리 등 주요 산업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균형발전과 광역교통체계 확충을 도모하는 핵심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국토교통부가 효천역 경유 노선을 포함해 최적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으며, 2023년 6월부터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했다.

광주시는 사업비 2000억원 이상과 연간 운영비 130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수요 확보 차원에서 효천역 경유 노선 변경을 국토부에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전남도·나주시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섰으나 결국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시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비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효천 경유 노선으로 사업을 재구성할 계획"이라며 "현실적 수요 반영과 함께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예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개선안을 마련, 전남도·나주시와 협력을 통해 예비타당성 재신청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통합의대 설립지원 특별위 가동

김태균 전남도의장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전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특별위원회 설립 안건은 김태균 도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도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도의회가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원팀으로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으며, 1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그동안 도의회는 이러한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지난해 11월에 목포대–순천대, 순천대–목포대가 통합에 합의하고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에 공식 추천한 바 있다.

하지만 12·3 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 및 파면, 의정 갈등 장기화 등의 국가적 혼란으로 인해 의대 설립 추진은 답보 상태에 놓였고, 급기야 정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이유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동결 방침을 발표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2026년 개교가 무산됐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돼 '진짜 대한민국'을 기치로 의료 공백 해소와 지방대 육성을 위한 국가 과제가 재정립되고 있으며, 전남 국립의대 설립도 다시 동력을 얻고 있다.

김태균 도의장은 "의과대학은 단순한 고등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생명권 보장과 인구소멸 대응,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전남 국립의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도민의 30년 염원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1면 '윤석열 재구속'서 계속

다만 구치소 내 빈방에 수용돼야 해 3평보다 넓은 방이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 하게 된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0일 오는 9월 개통 예정인 전남 남해선 '목포~보성' 구간의 영업시운전 열차 출발을 축하하며 관계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목포~보성 남해선 9월 말 정식 개통 예정

김영록 지사, 열차 운행 안정성·시스템 점검

교통약자 고려 증편 등 건의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목포~보성 구간 남해선 정식 개통에 앞서 10일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철도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시승 열차에 탑승해 실제 운행 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이번 시승·사전 점검은 2002년부터 추진한 전남 남해선 철도사업의 준공 개통을 앞두고 직접 열차 운행의 안전성과 시스템을 살피기 위해 이뤄졌다.

사전 점검 참여자들은 목포역에서 출발해 신보성역까지 이동하며, 시설 상태, 운행 안정성, 정차 편의성 등을 꼼꼼히 살폈다.

전남 남해선은 목포 임성에서 보성까지 총연장 82.5㎞ 구간으로, 첫 삽을 뜬 이후 무려 20년 이상 걸린 대규모 국가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6459억원에 달하며, 여객과 화물 운송이 모두 가능한 복합 철도 노선이다.

기존에 광주를 경유해 2시간 16분이 소요됐던 목포~보성 구간 이동 시간이 1시간 3분으로 대폭 단축돼 지역 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됐던 전남 서남권의 영암, 해남, 강진, 장흥과 인근 완도, 진도 등 도서·내륙 지역 주민도 철도를 이용해 서울·부산 등 대도시로 이동할 수 있어 교통수단 다양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승 열차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독자 제작한 상업용 준고속철도 차량인 EMU-260(최고속도 286㎞/h)으로 이동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철도건설 사업 추진 현황을, 한국철도공사가 개통 이후 열차 운행계획(안)을 각각 설명하고 전남도와 실무적 공유와 협력을 함께 했다.

전남도는 이번 시승 점검으로 드러난 몇 가지 개선사항과 함께, 철저한 안전 확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승하차 환경 마련을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고령층과 교통약자를 고려해 열차 운행 횟수 증편, 신설역 유인화 운영, 역사 내 안내체계 정비 등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시대 열자"…실국장 도시락 회의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폭염 대응 등 현장 업무 폭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최근 새정부 출범에 발맞춘 정책 대응과 여름철 재난 대비 등 실국별로 바쁜 업무 일정을 감안, 10일 실국장 도시락회의를 개최했다.

전남도는 최근 도정 핵심현안의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과 폭염 등 자연재난 대비, 전남도의회 도정질문 대응 등 업무 폭주로 모든 실국이 비상 아닌 비상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나 김영록 지사가 속도감과 발로뛰는 현장행정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실국장들이 내부 행정업무와 현장 소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어 간부회의 시간 맞추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의회 본회의 참석 후 오후 도민평가단 정기회와 남해선 개통 대비 현장 점검 등 숨가쁜 일정 속에 잠깐 짬이 나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도청 왕인실에서 실국장들과 도시락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솔라시도 전력망 조기 구축, 해상풍력 지원부두·배후단지 조성,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국가 기간전력망 지정과 재정지원, 재생에너지100(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에 포함될 인센티브, 광양·순천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우주발사체 특구 내 제2우주센터 조성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금은 '오로지 도민만을 위해 일하겠다'는 도민 제일주의를 견지하면서 삶의 현장을 세심히 살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 소외된 도민 없이 모두가 행복한 전남 실현에 힘을 모을 때다"며 "모든 공직자가 현장에서 발로 뛰며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 'OK, 지금은 전남시대'를 활짝 열자"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시, 살수·그늘막 추가 확대…폭염 대응 강화

광주시가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살수차 운행을 2배 늘리고, 그늘막 추가 설치, 야외근로자 보호조치 이행 등 폭염대책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5억원과 정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살수차'를 당초 계획 대비 2배 늘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요 간선도로 20개 구간 노선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살수차량은 기존 10대에서 20대로 늘려 살수작업을 벌인다.

계림동, 치평동, 봉선동 등 폭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보행로와 횡단보도 등에 대형 파라솔형 그늘막도 당초 91개소에서 40개소 늘려 131개소에 설치한다.

폭염 취약 분야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 2500곳에 '2시간 작업, 20분 휴식' '충분한 물 마시기' 등 폭염 행동수칙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